

그리스도인 교육사 믿음의 평서문

성경은 사람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나님은 모든사람이 진실을 알기 원하시고 또 그 이유는 우리가 진실하게 살며 또 그것을 이웃과 같이 나눌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를 본받기를 원하시는데 그의 최상 특징은 사랑이다. 사랑이 없는 권리는 헛것이고 진리가없는 사람은 감정뿐이다. 우리는 아래 구절에 따르는 가르침이 매우 중요하다고 믿는다. 그 이유는 이 구절들을 오해함으로써 삶의 품질을 손상시키게 되고 이 구절들이 바로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숭배하고 복종할수 있는데 직접 관계되기 때문이다.

1. 성경은 "하나님의-호흡", 원 기록엔 완전했다. 실수나 반복이 없었고 단지 확실함과 믿음을 위한 진실한 기본이었다. 성경은 적용하고 있는 논리와 성경이 해석해주는 원리와 우리안에 있는 성령과 결합시켜서 깨달을 수 있다.
2. 하나님, 창조자, 곧 그리스도의 아버지만이 "유일하신 참하나님(only true God)" (요한복음 17:3)이시고 거룩하시고 자기의 모든 창조물들과 구별되어있다. 이하나님은 개인적 하나님 으로서 기록의 말씀으로 자신을 우리에게 위탁하신다.
3. 예수그리스도 곧 "마지막 아담", (고린도 전서 15:45) 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다. 처녀 마리아로 인하여 출생하셨고 조금도 범죄함이 없는 생활을 하시고 고난과 죽음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의 죄를 갚으셨고 죽은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자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주" 라는 높은 칭호를 받으셨다.
4. "성령"은 다른 면으로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이다. 그동시에 사람이 거듭날때 하나님이 주시는 자기의 신성한 본질인 선물도 "성령"이라고 한다. (사도행전 2:38)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요한복음 3:6)
5. 성령의 나타남에 이름가지가 있는데 이 모두가 믿는자들 에게 다 차용 되었으며 누구든지 원하면 자기의 믿음에 따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각자 유익하게 사용할수 있다.
6. 오늘날 "비밀의 시대", 한에서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하나님이 그를 죽은자 가운데서 살리신것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히 잃을 수 없는 구원을 얻는다. 우리는 누가 어러시 언제든지 로마서 10장 9절을 듣고 믿는 그순간에 이 모든 것이 우리안에 이루어 질다고 믿는다. 그게 바로; "구원을얻고", "거듭나고", "인체를받았고", "기쁨부음을 받았고", "권능으로 옷 입혔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다. 이 성령 세례가 바로 에베소서 4장 5절에서 말 하는 "세례 도하나" 라고 하는 세례며 이 세례 교인 곧 그리스도의 지체에 지정된 세례다.
7. 사람이 죽으면 생명이 없어졌고 아무런 형체로나 아무런 곳에도 있을수가 없다 그는 예수님이 오셔서 모두 일으킨후 영원한 생명을 주든지 영원한 죽음을 주든지 판결 날 때 까지 죽음(잠)에 머물러 있다.
8. 성경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지체와 이스라엘이 구별되어있다. 오늘날 교에 속한 믿는 자들이 사도행전 2장 "오순절" 날부터 시작되어서 그리스도의 재림 (강림, Rapture) 으로 끝나고 그후에 이스라엘의 환난이 닥쳐오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이 이 땅에서 펼쳐 된다.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비밀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후사가되고 함께 약속에 함께 하는자가 되며 함께 지체 ("한 새사람")가 되게한것을 말한다. 이 비밀이 구약성경 에는 알려지지 안했고 4복음 즉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예시와 요한계시록 예시도 알려지지 안했고 처음으로 사도 바울에게 알려 졌다. 이게 바로 교문 인태(교에게는 편지) 로마서에서 부터 데살로니가서 까지를 말하며 이것들이 은혜의 시대 즉 교에다 준 성경의 중심 부분들이다.
9.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곧 자기의 지체에 대한 모든 일에 머리가 되셨다. 교의 인도자가 되어 성직 수 있는 권리의 자격은 오직 자기의 부름의 가치있는 행실로 행하므로써 자기의 품행이 성도들 중에서 건본이 되어 그들이 인정할수 있도록 이러한 것들을 자신의 노력으로 얻어야 한다.
10. 하나님은 사랑; 선하고 의로우시며 악의 작가가 아니고 죄나 고통의 작가도 아니다. 첫째 아담이 자원해서 하나님을 불순종 하기로 결심 했을때, 원래 하나님이 주신 "땅을 경복하라" 한 그 권세가 마귀에게 인계 되었다. 그 후로부터 사탄이 "세상신(god of this world)" 이되었다(고린도 후서 4:4); 지금 이세상은 그의 지체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요한일서 5:19) 또 바로 그가 현재까지 사망의 세력을 잡고 있다(히브리서2:14). 그러나 "마지막 아담"(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때에 그가 질곡은 마 귀를 없애버리며 악이 끊어지게 된다.

번역: 김영순

편집: 김정숙